

통합돌봄시대

전주시 주거환경개선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돌봄 대상자들은 의료·복지서비스 이전에 주거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 돌봄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낙상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 문턱과 협소한 화장실
■ 노후 전기시설	■ 곰팡이와 누수
■ 단열 부족과 에너지 빈곤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동 불편

1 현행 사업의 한계

- 전주시는 현재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 자가가구 주택개보수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웰빙 가정환경 조성사업
■ 노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중복 지원은 가능한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별 대상기준이 달라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한 통합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2 「전주시 주거환경개선 통합플랫폼」 구축

-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주거영역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접수·상담·조사·연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원스톱 창구 운영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한번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주거복지종합상담	■ 방문현장조사
■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모니터링)

둘째, 맞춤형 주거플랫폼 확대 운영 현재 전주시주거복지센터가 추진 중인 「맞춤형 주거플랫폼」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연계 지원합니다.

■ 해충 방역 및 소독	■ LED 조명 교체
■ 노후 전선 교체	■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연계
■ 주거환경개선	■ 태양광 설치 등

셋째, 집수리기동대 운영확대, 현재 운영 중인 집수리기동대를 통합돌봄 주거서비스로 확대하여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관문 도어록 교체	■ 도어체크 및 초인종 수리
■ 방충망 부분 교체	■ 전기콘센트 교체
■ 안전바 설치	■ 수도꼭지 및 샤워기 교체
■ 화장실 변기 수리	■ 세면대 보수
■ 에어컨 필터 청소	■ 칼같이 서비스

넷째, 통합돌봄 주거영역 전담기관 지정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합돌봄 주거영역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주거욕구 실태조사	■ 주거환경 진단
■ 주거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3 맺음말

- 전주시는 이미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흘어져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전달체계**입니다.
-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6년간 주거복지종합상담, 실태조사, 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습

니다.

- 통합돌봄 시대에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주거영역 수행기관이자 주거환경개선 통합플랫폼으로 육성한다면, 전주시는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하는 주거복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거가 안정되어야 돌봄이 가능하고, 돌봄이 가능해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합니다.”

2026. 06. 17.

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 오 은 주